

이상돈의 '바른 소리'



기상천외한 대통령 특보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특보 3명과 홍보특보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비상임직이라고는 하지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의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지낸 김재원 의원과 유상찬 의원을 정부특보로 임명하고 4·11 총선 때 정통민주당을 이끌었던 김경재 전 의원을 홍보특보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의문이기 때문이다. 다 알다시피 지난 4·11 총선 때 한광욱 국민통합위원장과 김경재 전 의원은 정통민주당을 창당해서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본인들을 포함해서 정통민주당의 모든 후보가 낙선했지만 수도권에 후보를 낸 지역에선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경우가 몇 군데 있었다. 정통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표를 잡았기 때문이다. 한광욱 위원장과 김경재 특보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지만 호남 특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 특보는 비서실장이 이끄는 비서실 조직과는 별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독자적 위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그런 지위를 부여해 오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맥조지 번디가 그러했고,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헨리 키신저, 그리고 카터 대통령 시절에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그러했다. 이들은 각각 하버드 대학원장, 하버드대학 교수, 그리고 컬럼비아대학 교수를 지낸 저명한 학자 출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특보로 기억될 만한 인물은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기용된 박종홍 교육문화특보와 함병춘 외교안보특보이다. 박종홍 특보는 서울대를 정년 은퇴한 저명한 철학자였고, 함병춘 특보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온 후 연대 교수를 지내던 중견 법학자였다.

박종홍 특보는 건강을 해쳐서 1976년에 사망했고, 함병춘 특보는 나중에 주미대사를 역임한 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아웅산에서 사망했다. 함병춘 특보는 10월 유신 후 긴장이 높았던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종홍씨와 함병춘씨는 각각 자기 분야에서 박정희 정권에 봉사하는 것이 조국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시절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10월 유신 조직이 있었고, 인혁당 피고인들이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는 등 인권이 심각하게 위헌됐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었던 이들이 이 같은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침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안

보보좌관을 지낸 맥조지 번디는 자신이 추진했던 베트남 전쟁이 처절한 실패로 끝난 데 대해 평생을 두고 괴로워했다.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원장으로 임명되어 미국 지식계의 떠오르는 해였던 그는 하버드에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인명이 헛되이 희생된 전쟁을 돌아보다가 생을 마쳤다.

이번에 대통령 특보로 임명된 이들은 어떠한 역사적식이나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저 그런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쓴 소리를 할 인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끝나도 이들은 그 실패에 대해 책임을 느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역 의원을 자신의 특보로 쓰겠다는 발상은 기상천외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100% 대한민국'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갈수록 국민과 유리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2012년 한해 동안 그를 도왔던 필자는 그 세월을 복기(復讐)하게 된다.

<중앙대 명예교수>

社說

광주도 월세 가속화 서민들 허리 휘다니

광주지역 아파트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열악한 지역 경제와 치솟는 물가를 고려할 때 지역 서민가계가 빈사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월세는 서민 주거비용을 상승시키는 데다 '생활비+주거비'의 이중고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2013년 1월 10.2를 기록한 뒤 지난해 5월 8.9, 지난 1월에는 8.3로 떨어졌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연 이자율이다. 전월세 전환율 하락은 그만큼 전세거래가 월세로 바뀌어 월세 공급 물량이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1월 기준 전월세 거래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5%로 나타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전세 물건이 10건 나왔다면 요즘은

전세 5건, 월세 5건이라며 2년 전에 비해 월세 물건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말한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79㎡(약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월세 전환으로 한 달에 60만 원 가량의 주거비가 들게 되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서민은 많지 않다고 한다. 월세 전환에 따른 가계 고정비의 지출 증가는 곧 내 집 마련 여력 감소와 생계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세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월세의 가속화는 정부의 안이한 주택정책 탓이 크다. 매매 수요를 전·월세 수요로 전환해 '전세대란'을 부른 것이다.

정부는 영구 임대아파트나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비용 경감에 나서야 한다. 또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단기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민의 '눈물'을 방지하면서 '공정사회'라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곳뿐인 소방 신호제어기 전시용 아닌가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차 긴급 출동시 소방서 인근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제어할 수 있는 신호등이 소방서 앞 달랑 1곳에 불과해 '골든타임' 확보라는 성과 달성도 거리가 먼, 시용만 내는 전시용 장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 전남도소방본부는 4월부터 각각 7개와 5개의 소방서 앞 교차로 1곳에 '긴급출동제어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신호등 제어기의 신호를 조작, 현장까지 빠른 시각에 접근토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스템 설치 효과를 살리기에는 제어기 숫자가 너무 적다. 설치 취지는 좋지만 도무지 효과가 날 것 같지 않다. 비상시 1분 1초가 아쉽기는 하지만 소방서 앞 진출입로가 사방으로 퍼져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1개 제어로는 결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방서마다 일률적으로 1개씩을 배정할 것도 안이한 행정이다. 소방서별 출동시각이나 현황 등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도 현장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 중 이른바 '골든타임'인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광주 지역의 경우 월산센터는 94.7%, 두암센터는 69.7%였다. 이렇듯 교통이나 도로 여건상 소방서마다 출동시각과 출동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우선 고려해야 했다.

긴급출동은 시간과 싸움이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소방본부는 시행 후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하는데 확대 도입하는 데 대안이 없다. 갈수록 차량이 넘쳐나는 대도시의 도로 여건상 소방차 출동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눈물을 그치게 하자



김성덕 화정교회 담임목사

다. 우리 예수님의 우심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울음은 비탄에 젖어 소리 내어 흐르니까 우는 울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비통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겉으로는 평화롭기만 한 예루살렘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지막 비극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성의 파멸과 재난을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되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AD 70년), 성벽 옆에 도성을 쌓아 난공불락이라는 예루살렘 성을 넘어들어오고, 마침내는 그 성을 함락시킬 모습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나라와 도시가 멸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만연한 인간들의 죄를 보셨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은 불의 했고, 부도덕했으며, 위선과 교만 속에 살아갔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니 너무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평화롭게 보이는 건물들과 성과 성전이 파괴될 모습을 상

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고, 언젠가 TV에서 본 내용입니다. 40세에 사업에 실패하고 두 아들마저 잃은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도와 전기도 없는 집에서 43년간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분에게 무엇이 행복이나고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욕심과 탐욕이 없다 보니 마음이 평안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는 욕심과 탐욕에서 나옵니다. 남보다 더 잘살고, 남보다 더 칭찬받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하고,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는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에 가장 아픔과 후회로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에 게 실망을 드리고 상처 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우리들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욕심 많고, 죄 많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죄악으로 몰려져 가는 사회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엄청난 형제를 죽이고, 전 처의 가족들을 죽이고, 술만 먹으면 가난을 비판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가 미우서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든 아들의 일도 있었습니다. 욕심과 미움의 결과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기혼남녀들의 불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가 가파워 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우리는 부모나 형제와 이음, 동료, 친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눈물을 그치게 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고

'가고 싶은 섬'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것



김준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를 키웠고, 마을은 문화를 낳았다. 인간은 숲이 없는 섬, 물고기가 없는 바다에 의지할 수 없다. 이들 섬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는 곳이 건강하다. 물어볼 것도 없이 그곳에 사는 섬사람들도 행복하다. 전남도는 그런 조건을 갖춘 섬을 선정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고향을 선물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생물학, 지리학 측면에서 고향이면 더욱 좋겠지만 마음의 고향이라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풍요롭겠는가. 그것만으로도 웰빙과 힐링을 넘어서는 치유할 절을 다가선 느낌이 들 것이다.

섬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삶의 흔적들이 씨줄날줄로 보석처럼 골목과 갯골, 숲길과 섬길에 박혀 있다. '가고 싶은 섬'은 이것을 깨내는 일이다. 기존의 '섬 개발'과 달리 '섬 가꾸기'인 것도 이런 이유다. 그래서 '섬 마을 만들기'인 셈이다. 섬의 생태와 문화를 자원으로 주민이 직접 보금자리를 가꾸는 사업이다. 더 이상 섬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것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청산도를 상상해보라. 그곳에는 비닐하우스는 없고 구들장논이 있다. 이층집은 없고 낮은 집들만 있다. 시멘트로 덧칠한 블록 대신에 돌담이 있고 초반이 있다. 하늘이 있고, 숲이 있고, 별이 있다. 숲 소리가 있고, 파도소리가 있고, 새소리가 있다. 이 모두

고향의 징후들이다. 좋은 숲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것은 우리 세대가 가꾸어 미래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이다. '가고 싶은 섬'은 섬 안에 있는 것을 보물로 만드는 일이다. 포구는 아늑한 어머니의 품안처럼 만들고, 미역을 뜯고 나무를 하러 가던 길은 걷고 싶은 '섬길'로 바꾼다. 골목에 다닥다닥 붙은 섬집들은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예술가들의 손을 빌려 새롭게 탄생한다. 빈집은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으로 바꾸고, 집안에 화분은 대문 밖에 내놓는다.

'가고 싶은 섬'으로 유혹하고 싶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행객이 아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야 했던 섬사람이다. 살기 위해, 자식교육을 위해 섬을 떠난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고향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다. 그들을 물으로 몰아낸 것은 어쩌면 '육지'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잘못된 섬 정책일 수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집 자리와 밭자리만 손에 쥐고 도망치듯 물으로 도피를 떠났다.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섬을 떠나고 싶을 때, 마음에 드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있으면 직접 구입해주면 된다. 그것이 믿을 만하고 품질에 만족한다면 주변에 알려진다. 그런데 섬의 생태를 보전하고, 사람이 머물며 미래의 고향을 만드는 '가고 싶은 섬'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다음은 여행객이다. 매년 전남도를 찾는 섬여행자는 40여 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더 희망적인 것은 최근 영산도, 관매도, 화화도 등 작은 섬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뒤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섬, 생태지원이 뛰어나고 따뜻한 주민들, 섬 냄새가 물씬 나는 섬을 찾고 있다. 훌륭한 리조트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밥상과 잠자리를 원한다. '가고 싶은 섬'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고향이 없는 아이들의 미래의 고향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고향의 정서를 모르고 지라는 청소년, 고향이라는 단어를 생소할 미래의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기성세대가 마련해 선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섬주민의 힘으로만 '가고 싶은 섬'을 가꾸기 어렵다. 마중물은 섬주민과 전라남도가 마련하지만 도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된다면 섬을 찾아주고,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에 드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있으면 직접 구입해주면 된다. 그것이 믿을 만하고 품질에 만족한다면 주변에 알려진다. 그런데 섬의 생태를 보전하고, 사람이 머물며 미래의 고향을 만드는 '가고 싶은 섬'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1887~1961)은 불운한 예술가다. 유명한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형이기도 한 그는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오른쪽팔을 잃었다. 피아니스트에게 팔이 없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러시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지만 나무 판자에 건반을 그려넣고 한손으로 연습하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레오폴드 고도프스키(1870~1938)는 파울 비트겐슈타인의 오

는 전시회 '이이남의 컬렉션과 우정'(12일까지)은 또 다른 동료애의 현장이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지난 7년간 구입했던 동료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문인인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는지 그 안목이 궁금해했을 전시이기도 했다.

주홍빛 소나무가 인상적인 손봉재 작가의 작품부터 정은화·김상연·박일규·이정록·윤남웅·차규선씨 등 8명의 작품을 들여다보며 이들의 우정을 생각해

이이남과 친구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레오폴드 고도프스키(1870~1938)는 파울 비트겐슈타인의 오

본다. 좋은 사람들의 좋은 작품을 자랑스레 내보일 수 있는 이이남 작가가 가장 행복한 사람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은 작가는 몇년 전 전시회에서 팔린 그림의 소유주가 이이남 작가라는 사실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예술가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직업이다. 묵묵히 뒤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이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라면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 팍팍한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편지도 따지지 않고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줄 동료와 친구에 대해 새삼스레 생각해 본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